

11월 13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1월 1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실적우려+ 폴슨실망` 뉴욕 폭락 [다우: 8,282.66pt (-4.73%)	이번주 초 서킷시티가 파산보호를 신청한데 이어 베스트바이가 연간 실적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후퇴(recession) 우려가 더욱 고조.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 소비 위축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에 직면하게 되면서 연일 기업발 악재가 쏟아지고 있음. 이날도 베스트바이 뿐만 아니라 메이시의 분기 손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아멕스)의 구제금융 요청설, 모간스탠리의 감원 등 악재가 줄을 이었음.
美 구제금융, 소비자 신용 지원에 초점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나머지 구제금융자금을 소비자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음. 폴슨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등 소비자 신용 부문의 경색으로 미국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실업이 늘고 있다"며 "7,000억달러 구제금융의 절반을 소비자 신용경색을 완화하는데 투입할 방침"
유가 22개월 최저 [WTI: \$56.16 (-\$3.17)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의 원유 수요 전망 하향이 유가 급락의 배경으로 작용했음. EIA는 이날 올해 세계 일일 평균 원유 소비량이 8,589만 배럴로 지난해보다 8만배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같은 증가폭은 한 달 전에 내놓은 전망에 비해 25만배럴 줄어든 수준임. 내년 전망치는 8,593만배럴로 99만배럴 하향 조정되었음.
달러, 엔 대비 하락	미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엔에 대해 하락했음.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이 내놓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 대한 실망과 경기후퇴(recession) 우려가 겹치면서 뉴욕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무게가 실렸음.
유럽증시, 상승반전...' 실적호재'	12일 하락 반전한 유럽 증시는 다시 상승세. 세계 최대 해운업체 AP월러-머스크는 올 1~9월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탈리아 최대은행 유니크레디트의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호전.
中, '2차 서기동수'로 내수부양 노린다	중국의 4조위안에 이르는 대규모 내수부양책의 구체적 윤곽이 잡히기 시작.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중국 북중부와 남부를 가로지르는 천연가스 수송관의 건설을 비준하는 등 내수확대와 성장촉진을 위한 10개항 가운데 4개항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
LG디스플레이, 美서 4 억弗 과징금..LCD 담합	미국 시장에서 한국 LG디스플레이와 일본의 샤프, 대만의 청화픽처튜브스 등 아시아 3개 LCD 디스플레이업체가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4억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됨.

제목	주요 내용
신성건설 회생절차 신청, 줄부도 신호탄	신성건설이 12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건설업계에 줄부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
기업 10개중 4개 “내년 성장률 3% 미만	대한상의, 531개 기업 대상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의 44%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미만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경제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환율안정을 꼽음.
증권사 CMA 금리인하 본격화 조짐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에 이어 금리 인하에 동참함에 따라 다른 증권사들의 인하도 잇따를 전망
채안기금 조성 보도	채안기금이 조성될수도 있다는 보도로 분위기가 강세반전.
한은에 환시안정 협의 기능 부여 수용불가	재정부는 한국은행에 환시안정에 대한 협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10월 고용동향 발표	10 월 경제활동참가율 61.9%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취업자 23,847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7 천명(0.4%) 증가 - 고용률 60.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실업률 3.0%로 전년동월과 동일 - 청년층 실업률 6.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계절조정 실업률은 3.1%로 전월과 동일
한은총재 BIS회의에서 외화유동성 논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국제결제은행(BIS)총재회의에서 최근 한국의 단기외화자금 실태와 미국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등에 대해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교환.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